

특별기고 연재

현동의 동학(東學) 이야기3

여는 말

필자는 최근 애니메이션 영화『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 흥행을 바라보며 이제는 무딘 필자의 붓을 들어 강호의 신사 숙녀 여러분들에게 동학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아야 하는 타이밍(timing)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간에 한류의 세계적 발돋움이 무르익고 흔하듯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국뽕에 사로잡힌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리는 조소(아래 질문3 참조)를 듣고 숨죽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필자는 20대 초반에 천도교 경전(經典)인 동경대전(東經大全)을 처음 접하고 또 동학혁명 100주년 기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일본 동경(東京) 국립도서관에서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일본 신문 자료를 복사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본 동학농민혁명의 재조명』이라는 석사 논문으로 학위(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56기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또 동학(천도교)수련을 통해 속죄(?)의 눈물을 몇 바가지나 쏟아내면서 수운 선생의 동경대전 중 논학문 『내유신령(內有神靈) 외유기화(外有氣化)』의 느낌을 몸소 체험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체험은 모든 종교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임)

본고에서는 이웃 종교를 비하하거나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고 한류 열풍에 왜 무슨 이유로 우리의 전통 사상인 단군조선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재세이화(在世理化)의 이념 등 우리 고유의 가르침이 포함된 동학이 잠자고 있느냐에 대한 필자의 아쉬움을 달래는 소고(小考)입니다.

필자는 수운 선생께서 직접 저술하신 천도교경전 논학문에서 “오역생어동수어동품亦生於東受於東하니 도수천도道離天道나 학즉동학學則東學이라(내가 또한 동에서 나서 동에서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나 학인즉 동학이라)”하신 것을 살펴 본 소고에서는 학(學)을 위주로 서술하므로 주로 동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지난호에 이어

질문 5: 동학 창도자 수운 선생이 동학과 서학이 일부는 같고 일부는 다른 것이 이치理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요약해 주세요.

답변: 논학문에서 수운 선생이 제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를 『운즉일야運則一也요 도즉동야道則同也나 이즉비야理則非也나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필자의 소견을 말씀드리면 그 답변은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운이 같다고 하신 것은 무왕불복지리無往不復之理를 받았다고 했으니 그 뜻인즉 한 번 간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치니, 순환하는 우주의 나선형 법칙과도 같은 것이요 흥망성쇠興亡盛衰의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도는 똑같은 천도天道라고 했으며 이치가 다른 것은 시천주侍天主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해월 선생의 의암 선생을 꾸짖으며 “그대는 시천주侍天主(하느님을 모심)하지 않는가?”라고 했듯이 서학과 더불어 대부분의 종교는 허공에 하느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지요.

동학은 한울님을 모시며(內有神靈)하고 外有氣化(화) 또 심고心告의식 물약자효勿藥自效(약 없이 심화기화心和氣和로 병을 치료) 등 서학과 다른 그 무엇이 있습니다. 동학수련을 통해 초월적인 그 무엇 즉 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비견한 예를 들어 보자면 환자를 치료하는데 수술하여 치료한 것과 수술

목차

도입부: 동학(東學)이 종교냐 아니냐에 대한 필자의 의견

질문 1: 서학인 예수교를 믿으면 죽은 후 천국에 가는데 동학인 천도교(동학이 곧 천도교)를 믿으면 사후에 천국 가느냐?

질문 2: 동학을 심학心學이라고도 하는데 마음공부(동학수련)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 3: 동학이 그렇게 훌륭한 종교(?)라면 왜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의 교세가 침체되어 번방의 종교로 추락했는가?

질문 4: 한류의 세계화와 더불어 한국의 민족 종교인 동학(천도교)이 세계화 될 가능성은?

질문 5: 동학 창도자 수운 선생이 동학과 서학은 일부는 같은데 일부는 다른 것이 이치理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요약해 주세요.

질문 6: 왜 이 시대에 동학입니까?

하지 않고 심화기화로 저절로 낮게 하는 것과의 차이죠. 그것 또한 이치가 다른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학은 왜 시천주일까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천주(한울님)와 다른 그 무엇, 쉽게 말하면 마귀, 마귀니 요즘 히트치는 『케데헌』 영화의 demon과 같은 것이 내재하는데 시천주 하는 순간에 조화가 되는 것이며 도통하는 것이요 생노병사를 벗어나는 것이며 곧 천지개벽되어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수운 선생이 탄軼 도유심급道儒心急편에서 『나쁜 기운(흐린 기운)을 쓸어 버리고 맑은 기운을 어린 아기 기르듯 하느니라』는 가르침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질문 6: 왜 이 시대에 동학입니까?

답변: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이 과학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 작금의 시대에 가장 부합되는 종교가 동학, 천도교입니다.

AI시대에 부합하고 또 기후위기대응이라는 인류의 전 지구적 과제에 딱 들어맞는 천지부모天地父母 사상을 주창하는 종교요 서양은 물론 동아시아

에 존재하는 유교인, 불교인, 기독교인(천주교, 개신교), 이슬람인 등등 모든 문화를 포용하는 융광로 같은 종교가 동학 천도교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과학계는 원자와 분자의 구조 연구에서 새로운 과학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공세포를 만들어 인공생명의 탄생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22년 일본 도쿄대학의 「이치하시 노리카즈」 교수는 단순한 자기복제 시스템을 시험관 안에서 진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자기복제 시스템은 240세대 1200시간에 걸쳐 진화시키자 다양한 RNA 변이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5종류의 RNA는 놀랍게도 공존해 서로 복제를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처음에는 1종류의 RNA 뿐이었던 자기복제 시스템이 5종류의 RNA가 서로 관여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 실험으로 원시생명이 지금과 같이 복잡한 생명체 계로 진화했다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아직도 미지의 문제로 남아 있지만 양자역학이론이 구체화되면서 생명과학의 돌파구가 열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면에 계속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5]

“바로 요거야! 긴 설교가 필요 없다”

죽은 높은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이러저러한 점을 잘못했다고 말을 할 때에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화를 내며 말대꾸를 하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것이 죽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부답인 것입니다.

나를 계속 사랑하면 나라는 마귀를 달궜지만 하나님만 사모하면 하나님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거야!

긴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쫓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쫓대인 것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험산준령(險山峻嶺)의 길입니다. 약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가루도 존재 없이 만들어야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

깨진 유리창의 법칙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아는가? 여기 이 법칙을 증명하는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에 보온 상태가 동일(同一)한 두 대의 자동차 보닛을 열어놓은 채로 1주일간 내버려 두었다. 그중 한 대는 보닛만 열어놓고, 다른 한 대는 고의로 창문을 조금 깬 상태로 놓았다.

약간의 차이만이 있었을 뿐인데 1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보닛만 열어둔 자동차는 1주일간 특별히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보닛을 열어놓고 차의 유리창을 깬 상태로 놓아둔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된 지 겨우 10분 만에 배터리가 없어지고 연이어 타이어도 전부 없어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낙서나 투기와 파괴가 일어났고 1주일 후에는 완전히 고철 상태가 될 정도로 파손되고 말았다. 단지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놓은 것뿐인데도 그것이 없던 상태와 비교해서 약탈이 생기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깨진 유리창’이라는 단어로 인해 ‘Broken Window’라는 새로운 법칙이 만들어졌다.

1980년대 뉴욕시에서는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서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마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뉴욕시의 치안은 형편없었다. 미국의 라토가스 대학의 켈링 교수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 근거해서 뉴욕시의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낙서를 철저히 지우는 것을 제안했다. 당시 교통국의 데빗 간 국장은 켈링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치안 회복을 목표로 지하철 치안 붕괴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낙서를

철저히 청소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지하철의 차량 기지에 교통국의 직원이 투입되어 무려 6,000대에 달하는 차량의 낙서를 지우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낙서가 얼마나 많았던지 지하철 낙서 지우기 프로젝트를 개시한 지 5년이나 지난 1989년, 드디어 모든 낙서 지우기가 완료되었다. 낙서 지우기를 하고 나서 뉴욕시의 지하철 치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믿기 어렵겠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던 지하철에서의 흉악 범죄 발생률이 낙서 지우기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완만하게 되었고 2년 후부터는 중범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94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놀랍게도 75%나 급감했던 것이다.

그 후 1994년 뉴욕 시장에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은 지하철에서 성과를 올린 범죄 억제 대책을 뉴욕시 경찰에 도입했다. 낙서를 지우고 보행자의 신호 무시나 빈 캔을 아무데나 버리기 등 경범죄의 단속을 철저히 계속한 것이다. 그 결과,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마침내 범죄 도시의 오명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하철의 낙서를 지우는 것이 그 주변 범죄율을 감소시킨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파장으로 인하여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한 가지가 변화하게 되면 그 주변까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의 말에도 신발이 가지런한 집에는 도둑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당신의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 정돈해 보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인류는 하나, 누구든지 내 몸처럼



예배 안내 (032) 343-9981

평일 1부 예배: 새벽 5시~6시,
2부 대예배: 오전 9시~10시,
3부 예배: 오후 2시~3시,
4부 예배: 오후 7시~8시

토요일: 평일 예배 3부까지 동일,
4부 예배: 오후 5시~6시

일요일 대예배: 오후 1시~3시

이슬을 들고 나오는 자가 메시아・미륵불・정도령

메시아와 마이트레야(Mayetrya: 미륵불을 뜻하는 범어)의 어원은 모두 ‘미트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는 기독교와 불교 등 종교는 달라도 인류를 구원할 존재는 결국 동일한 한 분임을 시사한다. ‘메시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며, 마이트레야는 사랑과 자비의 가르침을 가지고 올 미래의 부처, 즉 미륵(彌勒)을 말한다.

각 종교는 저마다의 구원자를 기다리지만, 남사고의 『격암유록』 은비가에 “儒佛仙三各人出(유불선삼각인출) 末復合一聖一出(말복합일성일출)”이

라 하여 말세에 삼교를 합일할 한 분의 성인이 출현함을 명확히 예언하고 있다.

현세에 스스로를 구세주라 칭하는 자들은 많으나, 진정한 주인공을 가리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지표는 바로 경전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이슬’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긴자에게 이슬로 임한다(호세아 14:5)고 했고, 불경은 열반경을 비롯하여 법화경 등에 미륵불이 감로(甘露: 단 이슬)를 내린다고 했으며, 『격암유록』 또한 정도령이 무소불위(無所不爲)한 감로해인(甘露海印)을 가지고

나온다고 기록했다. 이슬은 마귀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이자 전지전능한 메시아의 분신체(分身體)이며 영생을 주는 생명과일이다.

따라서 이슬을 내리지 못하는 자는 구세주가 될 수 없다. 사망의 신을 없애고 생명을 주는 이슬을 내리는 존재야말로 참된 메시아요 미륵이다. 이 거룩한 이슬은 승리제단에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류는 승리제단에 와서 진정한 메시아의 은총을 입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